

목포시 통장 '코로나 위로금' 30만원 내년 선거 앞두고 '선심성 행정' 논란

“모두가 힘든데... 형평성 어긋나” 시 “행안부 지침따라 인센티브”

목포시가 관내 통장들에게 '코로나19 노고 위로'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해 선심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 굳이 통장들만을 대상으로 활동비를 추가 지급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지적이다.

14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일 관내 통장 619명에게 30만원씩 총 1억8570만원을 지급했다. '방역활동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노고를 위로 한다'는 명목으로 통장들 수당 통장으로 입금했다. 하지만 목포에서는 13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131명 발생하는 등 타 지역과 비교해 확진자가

많지 않을뿐더러 산발적으로 발생, 방역상황은 심각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도 갑작스레 통장들에게 한 달 활동비에 해당하는 30만원을 추가 지급해 일부에서는 방역 활동 노고 위로보다는 내년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 A씨는 “모두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매달 활동비를 받고 있는 통장들에게 노고에 대해 위로한다며 추가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코로나19 발생으로 활동비도 받지 않고 봉사하는 많은 시민사회단체들도 있는 만큼 시가 좀 더 신중하게 예산을 집행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현재 목포지역 통장들은 매달 30만원의 활동수당과 함께 4만원의 회의 참석 수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인

센티브를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통장들이 안내서를 전달하고 동의서를 받거나 노약자의 경우 이동까지 돕는 등 방역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급을 서둘렀다고 밝히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관련 중대본부 회의에서 최초 인천시에서 통장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행안부는 이 인센티브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선거관리위원회 검토를 통해 각 지자체 별 재난안전기금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지난달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양시는 통장들에게 활동비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고 여수와 순천시도 조만간 지급할 예정”이라며 “목포시가 적극 행정으로 가장 먼저 지급했을 뿐 선심성은 아니다”고 밝혔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완도해경 '구명조끼 착용' CM송 제작·배포

완도해양경찰서가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해양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누구나 따라 부를 수 있는 구명조끼 착용 CM송(홍보 음악) 영상(사진)을 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완도해경은 구명조끼 착용률을 높이고자 국민들이 쉽고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CM송과 이를 활용한 유튜브(Youtube) 영상을 제작했다.

이번 CM송은 밝고 경쾌한 분위기로 어린이를 중심으로 온 가족이 함께 부를 수 있다고 완도해경

은 설명했다.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영상과 함께 완도해경 공식 유튜브 계정(해양경찰 완도해경 TV)에도 게시한다.

완도해경은 각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해 여객선터미널 전광판, 군청 누리집 등 각종 매체를 통해 CM송을 홍보할 계획이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안전한 바다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완도=정은조 기자 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노랗게 물든 홍도...신안군 10일간 원추리 축제

16일~25일 다채로운 행사

신안군이 흑산면 홍도에서 '섬 원추리 축제'를 연다.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열리는 축제는 단순 해양관광에서 벗어나 홍도 1~2구 마을의 육상 포도존과 신비로운 홍도의 해안선을 따라 피어난 원추리꽃을 배경으로 한다.

1섬 1테마 공원을 조성 중인 신안군은 2019년 홍도를 원추리 섬으로 선포했다.

식물명이 별도로 존재하는 '홍도 원추리'는 다른 원추리에 비해 꽃이 유난히 크고 아름다우며 질감이 고풍하고 관상 가치가 매우 뛰어나 고유자생의 유전자원으로서 큰 가치를 지니고 있다.

홍도 원추리는 홍도의 인문환경과 역사를 함께하고 있다.

육지 주민이 보릿고개를 보낼 때 홍도 주민은 원추리 잎으로 나물을 만들어 먹으면서 배고픔을 견뎌 냈다.



홍도 해안선을 따라 자생하고 있는 원추리.

홍도는 신비스러운 경관으로 1964년에 천연기념물 제170호로 지정됐다. 1981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대한민국 최

고의 관광지목 목포에서 쾌속선으로 2시간 30분 거리에 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달마고도 '별빛·달빛 보며 감성걷기' 행사

해남군 24일~8월21일 3차례 진행

해남군은 달마고도에서 한여름 더위를 피해 별빛과 달빛을 감상하는 감성걷기 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여름날, 새벽&달빛 달마고도 걷기' 행사로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여름철 무더운 낮을 피해 달마고도에서 별빛과 달빛을 감상할 수 있는 감성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달빛걷기 1회, 새벽걷기 2회다.

모두 미항사에서 출발해 3시간 정도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코스로 마련했다.

새벽걷기는 해가 뜨기 전 출발해 천천히 걷다 보면 멋진 다도해 일출을 감상할 수 있다.

보름날(음력 15일) 진행되는 달빛걷기는 걷는 도중 날이 어두워져 일몰 경관을 감상할 수 있고

트래킹이 끝날 즈음이면 맑게 떠오른 보름달까지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걷기행사는 차수별 선착순 30명에 한해 진행한다.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카카오톡 채널(365일 달마고도 워킹데이) 또는 해남군 관광실 축제팀으로 전화를 통해 미리 참여를 원하는 날짜에 신청하면 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용은 무료이다.

이번 걷기행사는 걸으면서 스레기를 쥘는 '쥘깅(스레기줍기+조깅)'으로 진행하며 참여자들에게는 봉사활동 실적이 인정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코로나와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이 달마고도에서 쉬어 가며 힐링하고 여름 휴가철 기억에 남는 여행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해남 달마고도의 삼나무 숲길.

〈해남군 제공〉

20일부터 목포사랑상품권 10% 할인판매

목포시가 오는 20일부터 목포사랑상품권을 10% 특별 할인 판매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목포사랑상품권은 오는 9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지류형으로 100억원 규모다.

목포사랑상품권은 1인당 월 30만원, 연간 400만원 이내로 구매 가능하다.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농협, 광주은행, 축협, 수협, 신한,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의 56개 지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음식점·마트·주유소·미용실·도소매업·숙박시설·전통시장 등 목포지역 8000여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대형마트·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제한된다.

목포사랑카드는 체크카드형 상품권으로 관내 광주은행 5개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고, 월 사용금액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목포사랑상품권 사용가맹점은 목포시 홈페이지의 일자리/경제 코너의 목포사랑상품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시행하는 상품권 할인 판매가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의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